

# 세계도 반한 자연·문화...4色 매력에 빠지다



경주 태종무열왕릉

##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

술술 날도 풀리고 여기저기 움직이기에 좋은 시간이다.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새로운 배움도 얻을 수 있는 1석2조의 여행이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 탐방'이라는 테마로 한국관광공사가 일찌배기 여행지를 추천했다. 관광의 즐거움과 배움의 뿌듯함이 함께 하는 여행이다.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문무대왕릉까지

2014년 2월 경주 월성 산책로를 걸어보자. 1500여 년 전 신라 지증왕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걸음일지도 모른다. 파사왕이 축성한 뒤 신라의 궁궐이 된 월성. 조승달 모양 지형에 숲과 잔디밭만 남았지만,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며 산책하기 좋다. 한때 월성의 주인이었던 진평왕과 선덕여왕은 부녀간으로, 보문동과 남산 자락에 묻혀 남촌 들녘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능은 양북면 봉길리 바다에 있다. 신 문왕은 아버지 유연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뒤 모차골 산길을 따라 기림사를 거쳐 동해에 뿌렸다. 그는 아버지의 능과 멀리 떨어진 배반동에 묻혔다. 또 서악동에 자리한 태종무열왕릉은 필수 답사코스다.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아버지에게 대한 효심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혜공왕에 이르러 완성했으니 손자의 치사랑까지 품은 것이다. 과거의 얘기를 담고 현재를 걷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에서의 여행이다. 문의:경주역 관광안내소 054-772-3843, 터미널 관광안내소 054-772-9289.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  
몽골과 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던 고려시대, 옛 사람



세자가 학문을 익히던 창덕궁 성정각

들은 목숨을 부지할 방책을 찾는 대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불사를 일으켰다. 부처의 일생과 가르침을 새긴 대장경을 제작하면서 민심을 모은 것이다.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8만4000번뇌를 의미하는 8만4000범문을 새긴 목판으로, 세계에 현존하는 대장경 중 가장 방대하고 오래됐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그를 봉안한 장경판전 역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장경판전이 있는 해인사는 법보사찰로 꼽히는 천년 고찰이다. 근엄하면서도 기품 있는 사찰의 면모는 병풍처럼 두른 가야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역사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대장경 제작 과정과 장경판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장경 테마파크와 해인사 소리길을 찾아 보자. 합천 영상테마파크도 함께 둘러보기 좋은 합천의 명소다. 문의:해인사 종무소 055-934-3000.

◇조선의 왕들이 지극히 아끼던 공간-창덕궁과 종묘  
창덕궁과 종묘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제주도 거문오름 전망대

유산이라는 점과 조선의 왕들이 각별하게 아끼던 곳이라는 점이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오랜 세월 왕들이 거처한 궁궐이다.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무대가 된 인정전은 웅장한 맛이 넘친다. 왕실 여인들의 생활공간인 대조전, 왕이 업무를 보던 선정전, 왕세자가 공부하던 성정각, 조선의 마지막 황실 가족이 살던 낙선재 등 건물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던 창덕궁 후원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장소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왕실의 사당이다. 단일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정전을 중심으로 영녕전, 재궁 등 종묘의 건물들에는 하나같이 장엄한 맛이 흐른다.

역사와 함께 과학·예술도 곁들여 여행 코스를 짜는 것도 좋다. 국립 서울과학관,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과학, 문화, 예술적인 볼거리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여행을 낚을 수 있다.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은 종묘 앞 광장시장은 여행의 즐거움 마침표가 될 것이다. 문의:창덕궁 관리사무소 02-762-8261.



합천 해인사 봉황문

◇용암이 빛은 동굴들의 시작점-거문오름

나직나직하지만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는 크고 작은 오름 수백 개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용암이 만든 다양한 동굴과 분화구의 식생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거문오름(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탐방로를 따라 분출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든 용암 계곡과 동굴, 바위 덩어리로 된 지표면에서 바람이 불어 나오는 풍혈, 화산 활동 당시 만들어진 화산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거문오름 탐방은 4개 코스로, 1일 예약자 400명만 탐방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와 함께 출발한다.

오름 입구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조랑말의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랑말체험공원, 제주 여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해녀박물관도 함께 돌아보자. 문의: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064-710-8981.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농성역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